

# 국회 빠르면 금주중 정상화

### 한-민주 등원 협상 진전 민주 “시기 결정만 남아”

임기 개시 후 한 달째 공전을 겪고 있는 18대 국회가 빠르면 금주중 정상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논의를 전제로 한 달 이상 공전해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사실상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지난달 30일 알려졌다.

더욱이 등원 시기 결정을 위임받은 민주당 원내영 원내대표가 금주 말 국회 등원 가능성을 내비치기 이르면서 이번 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통합민주당 원내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비공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돼온 가축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가축법 개정 외에도 ▲최고기 국경조사 실시 ▲기능을 제한한 법사위의 민주당에의 양보 등을 포함한 14개 정상화 방안을 제안했다고 당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박주선(오른쪽에서 세번째), 주승용(오른쪽에서 첫번째) 의원 등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가축법 교차(자유) 투표를 못 하겠다고 해 좀 더 양보할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조만간 등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섰으나 원내대표단이 시기 결정을 위임하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 제도권 내에서보다 정교하고 기술적인 보완책을 찾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등원 시점에 대한 판단이 일임됐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새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갈등요소가 있는 사안이라도 새 지도부 구성을 계기로 결정해야 한다는 양론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이른바 내달 6일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이라도 당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등원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이와 앞서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의 모두 발언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일임됐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새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 여당과의 등원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한편 소속 박지원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촛불의 열기와 요구를 국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민주당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된다.”

## ■국회 개원 분위기 고조로 개각 작업 본격화

# 장관 4~6명 교체...‘중폭’ 유력

### 한 총리 유임 가다...원구성 되면 단행

청와대는 18대 국회 개원 분위기가 무르익음에 따라 개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인선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실무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소한 개각의 방향 정도는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G8(선진 8개국) 확대정상회의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다음달 8, 9일 이후 개각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가 조기 개원할 경우 이르면 내주 초개도 이뤄

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여권 내부에서는 한승수 총리에 대해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당초 경질을 검토했던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도 일단 교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의 교체 유력하고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파업의 초기 대응 미흡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부족 등의 이유로 교체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의 경우 교체와 유임 가능성이 교차하는 등 거취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가에서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공직 사회 내에서 거부감이 깔려있는 데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점이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구상을 드러낸 적이 없어서 개각에 대해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공직사회의 동료 등을 감안해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면 개각을 조기에 단행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 당권주자들 ‘계파’ 선거 개입 설전

한나라당 차기 당권주자들이 지난달 30일 KBS 방송토론회에서 이른바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 등 당내 계파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각 주자들은 특히 당초 이날 저녁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논란 끝에 연기된 친이 측의 대규모 모임의 성격과 관련해 “한 당권주자들은 특히 당초 이날 저녁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논란 끝에 연기된 친이 측의 대규모 모임의 성격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정몽준 의원이 지난달 27일 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의 공천 탈락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등 토론회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선배가 대표가 되면 잘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공천심사 때 그렇게 해놓고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 등 당내 계파의 전당대회 선거개입 문제를 놓고 가시돋친 설전을 벌였다.

이에 박 전 부의장은 “자꾸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뒤 “그릇도 크고 대가업도 경영한 분인데 자꾸 편을 가르고 자격을 제한하는 식으로 얘기해 유감”이라고 했다.

“친박 측이 낙천됐으면 당에 복귀하면 안되느냐”며 “독단적으로 남의 자격을 언급하는 건 지도자로서 도량이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그러자 정 의원은 “복당은 심사에서 권한과 권위를 갖고 하는 것으로, 대표가 된다는 건 다른 면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나아가 친이 친박 등 계파를 거론하며 “계파로 한나라당이 흩어지는 건 국민 배신행위”라면서 한나라당 당규를 틀어막아 친이측 모임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박 전 부의장은 “국회의원 20년을 했지만 단 한 명도 계파로 거느린 적 없다”며 모임을 무관함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00여명이 모이는 중요 모임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답이 되느냐”며 “당규를 위반해 대표가 되면 제소해 무효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같은 당이라 그럴 수 없고 잘못 하시길 바란다”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연합뉴스

## 정부, 오늘 한미 FTA안 심의·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만큼 내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다시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FTA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FTA비준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대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1일 국무회의에 같은 내용의 FTA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강운태의원 세비 전액 기부



속히 국회 정상화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정상화 대책과 관련, ▲한 당권주자들은 특히 당초 이날 저녁 개최하기로 예정됐던 논란 끝에 연기된 친이 측의 대규모 모임의 성격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정몽준 의원이 지난달 27일 토론회에 이어 또 다시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의 공천 탈락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두 후보 간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등 토론회장은 후끈 달아올랐다. /연합뉴스

강운태(무소속·사진)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 조속한 개원을 요구하며 지난 32일 동안의 세비 778만7천원 전액을 소아환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에게 써 달라고 광주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세비 전액을 기부한 뒤, 국회 개원이 장기간 공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각 정당은 조

www.hanbitgosi.co.kr (홈페이지 참조)

**이젠! 공무원시험 합격도 전략이 필요하다.**

**여름방학 공무원시험 합격전략 무료 설명회**

일자: 6월 28일 15:30~18:30 (선착순 800명)

당일 종합반 수강자 수강료 10%·교재할인 30%할인

설명회 참석자 전원 최근 5년간 기출문제(25,000원) 무료제공

당일행운권 추첨 10명 - 당첨자에게 수강료 50%할인

개강 7월 1일

예비공무원 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북구청앞 234-0234

개강 7월 1일

핵심요약정리 + 단원문제 이해

기본서 공인중개사 프린트 시험지

최종문제풀이 주택관리사

직장인을 위한 고용보험 한금과정

국비무료 현재 접수중

[6월 30일까지 방문접수 요망]

44년 전통!! 합격률 1위!! 전국수석 배출!!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전문

www.lan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정일빌딩 뒤)

청년점 ☎ 971-0002 (구북부트림점 옆 광주은행 4층)

원서접수: 2008.8.18 ~ 8.27 [원서접수대행]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개강 6월 21일(토)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 초기자격으로 최고의 유망직종	고용보험 가입자
- 농산물품질관리법 29조의7에 의해 고용사실에 농림부 자금 지원	수강료의 80% 환급
▶ 시 험 : 1차) 8월 31일 / 2차) 11월 9일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현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7월 1일

문제풀이특강

고용보험가입근로자교육비환급

(첫진도 시작반) [핵심이론+단원별문제풀이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비담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 33개 학원체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기위 ● 신배합각자분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기위

합격률 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북구점 ☎ 268-8111

▶ 학성점, 오치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출발빌딩 4층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성황리 강의중)=

**공무원완전대비**

행정 기획 세무 관세 감사 법학 경찰 교정 모호 수합 전산 특검 특통 건축 보건의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향기56명 8월2일, 서울29명(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7월 1일 (주·아·연모집)

합격수강 회원모집

● 6개월(총)회원 80만원

● 1년(총)회원 120만원

● 합격사까지 170만원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al.co.kr